

■ 김동수 공정위원장 광주 방문

“총인 비리업체 엄중 처리”

3500여 중소기업들과 핫라인 구축해 실태 파악

구두발주·단가 인하·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개선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의혹은 빠른 시일 내에 엄격히 조사하고 담합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일 하도급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인시설 입찰 담합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9일 검찰로부터 입찰담합 조사 요청이 있었고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대형마트·기형형 슈퍼마켓(SSM)의 무휴업 등에 대한 입장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고질적인 문제라서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500여 개 중소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두발주, 부담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행위를 실질적



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동반성장 협약 체결 확대 등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휴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와 지역 실태에 맞는 근본적인 조치

를 찾기 위해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혹시라도 납품업체에 다른 추가 부담이 늘어났는지 등 정밀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을 ‘미스터 컨슈머(소비자)’로 불러줄 것을 요청하며, 올 한해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으로써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도 비쳤다.

김 위원장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건전한 온라인 시장 활성화,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 행위 단속, 한·미 FTA 관련 품목 집중 점검 등도 눈여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컨슈머리포트는 올해 소비자 역할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도와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시장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에서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개소식에 참석한 뒤 전남 올촌산업단지과 전남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 소비자원 광주본부 개소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본부장 김종남)가 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열린 광주본부 설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개소식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왼쪽 두번째), 오영희 한국소비자연맹 전남·목포 소비자연맹회장(왼쪽 첫번째), 지역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銀 ‘새희망홀씨’ 100억 돌파

올 3개월 실적...국내은행 유일 목표 50%달성

광주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지원 규모가 3월 말 101억원 돌파하면서 올 목표의 50%이상을 달성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200여명이 101억원의 ‘새희망홀씨’ 지원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2010년 11월 출시했다.

올해 1분기 지원액은 385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7% 늘었다. 이는 올해 은행들의 목표 취급액 1조 5000억원의 26% 수준이다.

광주은행은 국내은행중에서 유일하게 50%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1200여명에게 101억원을 지원해 올 목표액 200억원의 50.6%의 달성률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2262명에게 196억원을 지원해 목표액 185억원을 105.9% 초과달성, 서민들에게 힘이 됐다.

은행별로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이 각각 428억원, 380억원으로 올해 목표의 65.8%, 65%를 달성했다. 목표액이 각 은행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10~20%

수준이라 규모가 작은 외국계은행은 목표 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지방은행에서는 경남은행이 717명에게 87억원으로 33.6%, 대구은행이 698명에게 50억원(11.5%), 부산은행이 1322명에게 118억원으로 21.0%, 전북은행은 1430명에게 61억원(25.2%)의 달성률을 보였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대출 은행별 목표액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선에서 부여되고 있다”며 “광주은행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당초 목표액 대비 27억원을 초과해 목표액을 설정, 서민금융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달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광주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근로자에게는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한다.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전화 062-609-8802~7.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분리매각 수용하라”

광주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철회 촉구 성명

광주시는 2일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분리매각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방침’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성명에서 “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등을 골자로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은 그동안 줄

기차게 분리매각을 요구해 온 광주·전남 350만 시·도민의 바람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민의 손으로 창립한 광주은행이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지역환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또 “광주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경영혁신을 통해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이 1337억원, 자기자본비율(BIS) 14.01%, 자산규모 18조원

등 전국 지방은행 가운데 네번째로 큰 우량은행이 됐다”며 “광주은행의 지역환원 과제가 장기간 표류되는 것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지역 자원의 역외 유출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자본에 기반한 건설한 지방은행의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결연,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과 광주은행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8층 아동복 매장에서 한 여성 고객이 아이와 함께 옷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나들이길 누가봐도 우린 한가족”

광주신세계 패밀리룩 인기...매출 15~30% 높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옷을 맞춰 입는 고객들이 늘면서 ‘패밀리룩’이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브랜드 상품과 자체 고객 판매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아동복과 성인복을 함께 취급하는 브랜드의 매출이 성인복만 판매하는 브랜드에 비해 평균 15~30%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복과 성인복이 같은 디자인으로 된 ‘패밀리 룩’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기존 캐주얼 브랜드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속옷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패밀리룩’을 선보이고 있다.

‘패밀리 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은 가족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족 문화가 확산한데다 주 5일 수업에 따른 체험형 야외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백화점 측은 분석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나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패밀리룩의 매출 상승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히 5월에는 기념일이 많은데다 여수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도 개최하는 등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밀리 룩을 세련되게 연출하고 싶다면 단순한 디자인과 화사한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옷을 선택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피부와 장 건강, 면역력 증진을 통한 활기차고 행복한 삶!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출시!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를 첨가하지 않은 3無 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는 알로에의 보고장 미국에서 금빛 태양의 기운을 머금은 순수한 자연의 알로에 원료만을 고집합니다.

섭취대상자

- 면역력 증진을 원하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 배변 활동이 좋지 않아 장 건강이 걱정 되시는 분
- 피부 건강을 원하시는 분

•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